

# “전쟁·문화 총망라한 서양 문명사 지적 충격”



12 김춘섭 전남대 명예교수

8년 전 대학교 강단을 떠난 노(老) 교수를 만나러 갔다. 국문학과 교수였던 그는 반평생을 몸담았던 대학교 인근에서 여전히 책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15평 남짓한 공간은 책 냄새가 가득했다. 2만5000여권의 책으로 둘러싸여 작은 도서관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문학 서적 외에도 공감을 따르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고전영화 DVD 1000여장과 세계사 서적 5000여권, 수많은 세계지도들이 그의 취미를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곳곳에는 그의 아들이자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김정원씨의 포스터가 붙어있었다.

**문화예술에 빠져 의대 포기 국문학 전향**  
**퇴직후 전대후문에 연구소 개소 7년**  
**제자들과 인문학 연구하며 매주 강좌**  
**“설화·민담의 보고 ‘삼국유사’ 필독서”**

광주시 북구 전남대 후문 인근 하나빌딩 5층에 자리한 인문학 리세움(Lyceum) '일우문사(日又文舍)'는 지난 2006년 교정을 떠난 김춘섭(71·문학박사) 전남대 명예교수가 제자들과 함께 만든 공간이다. 김 교수의 호(日又)를 따 그의 제자들이 이끄는 일우문사는 제자들과 문학을 연구하는 공간이자, 광주 시민들과 인문학을 공부하는 공동체다.

그는 “정년 이후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인문학 강좌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고, 일우문사에서 여전히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두 차례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2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강좌를 반복해서 벌써 6년 넘게 들을 만큼 김 교수의 팬이 된 수강생들도 있다. 그는 6개월 전부터는 광주 지역 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도 매주 목요일 인문학을 전파하고 있는 등 이곳저곳에서 밀려드는 인문학 강좌 요청을 소화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다.

김 교수가 가르치는 인문학 분야는 ‘서양 문명사’다. 언젠가부터 서구 문명사는 그의 탐구대상이자 문화의 또 다른 전문분야가 됐다.

“서양 문명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전쟁, 자연, 문화, 예술, 철학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문학만큼 열심히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들에게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역사를 배우는데 ‘누가, 언제’ 만큼 ‘어디서’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항상 강좌를 시작하고 1~2주는 세계 지도만 놓고 강의를 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역사인지를 알아야 아니까요.”

일우문사에 희귀한 세계지도들이 많은 이유다. 김 교수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지도들이다. 그는 세계사는 책 1~2권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다고 했다. 그만큼 반대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가 한 강좌를 2년 동안 지속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수강생들에게 E.M 번즈 등이 쓴 ‘서양 문명의 역사’는 꼭 권한다고 한다. 서양 문명의 역사 전반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이 책은 90년대 그가 런던에 교환 교수로 갔을 때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쇠망사’ 등과 함께 탐독한 책이다. 그는 80년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한국 현대문학을 연구하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문학을 접하기 시작했고, 서양의 문학이론에 빠져들면서 서양 문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연세대 의대에 다니다가 문학과 클래식 등 문화·예술의 유혹에 빠져 고려대 국문과에 진학했다. 그는 그곳에서 ‘은신’ 등을 쓴 방송작가인 아내 이금림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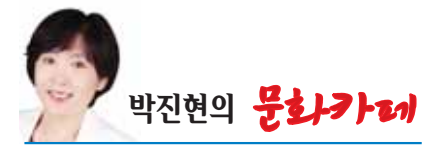
김 교수는 대학에서 현대문학을 공부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연암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이었다.

“연암이 중국 청나라 건륭제의 고쳐엮은 외교사절단으로 따라갔다가 쓴 열화일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꿈틀거리게 했습니다. 중국 청나라 3대 황제인 건륭제의 정치 마인드가 인문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세계에 대한 통경이 책을 통해 느껴졌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때는 처음으로 구약성서를 접했는데,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모르는 지명과 사람이 수도 없이 등장했거든요. 구약성서 자체가 매력적인 역사서였던 것이죠.”

김 교수는 서구 문명을 아는 것만큼 한국의 역사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삼국유사”는 지금도 무엇을 하든지 꼭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삼국 시대 숨은 역사의 배경, 야사, 설화, 민담의 보고니까요. 그것들을 가장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지난해 가을 광주시 동구 예술거리에서 매우 특별한 전시회를 만났다. 그것도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갤러리가 아니라 낡고 오래된 빈집이었다. 20~30대 젊은 작가들이 꾸민 ‘아트 토크-남쪽이야기’는 감동, 그 자체였다. 갈수록 쇠락해 가는 예술의 거리를 되살리기 위해 빈집(광주시 공동 예술길 17-7)을 예술적 상상력과 끼가 넘치는 아트하우스로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먼지와 거미줄이 ‘자리를 잡았던’ 안방 벽에는 수십점의 검정고무신을 소재로 한 설치작품이 내걸렸고 낡아서 빼겨거렸던 마루는

황폐하고 쓸쓸했던 나오시마는 자연과 건축, 미술이 어우러진 이에 프로젝트 덕분에 ‘예술의 낙원’으로 되살아났다. 자전거리 10분 거리에 있는 지추(地中)미술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누린 결과이기도 하다. 요즘 ‘한국의 산토리니’로 불리며 도심 재생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공동 예술마을도 이에 프로젝트의 감춰진 면이 있다.

최근 광주시가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말까지 동구 등 4개구의 빈집(전체 2374채) 4곳을 구입해 공익공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

## 빈집 프로젝트 in 광주

LED조명이 흐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옥카페로 변신했다.

예술의 거리의 ‘빈집 프로젝트’를 둘러본 순간 3년 전 취재차 방문했던 일본 나오시마 섬의 ‘이에(家) 프로젝트’가 떠올랐다. 이에 프로젝트는 지난 1998년 후쿠마 향의 100년 된 낡은 7채의 집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도심재생사업이다. 특히 제사를 지내던 신사는 빛과 여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현대미술작가 제임스 터렐의 ‘미나미 테라(南寺)로 옷을 갈아입었다. 골목길을 따라 이집 저 집 둘러 보는 즐거움은 어린 시절 보물찾기를 떠올리게 했다.

만 도심재생의 일환으로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기로 했더니 반갑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우선 전당 주변의 빈집들에 ‘올인’하면 어떨까. 도심의 빈집을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로 리모델링하면 2015년 개관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 도심은 전당 이외에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만 볼거리가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광주관 이에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전당을 도심의 거대한 섬으로 고립시키지 않으려면 더욱 그렇다.

(편집국 부국장·문화선임기자)

## 광주 7개 문화기관 정례협의회의 출범

디자인센터·문화재단 등 7개 문화중심도시 사업 아이디어 발굴

광주문화정책 개발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업무를 도모하는 7개 광주문화기관 정례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디자인센터, 광주문

협의회 소속 기관 대표자들은 이날 “문화도시 성장의 기반시설이라 할 문화유관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전제하며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통한 융복합 과제를 중심으로 한 ‘창의 네트워크’를 통해 무한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내용을 담은 결성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대표자들은 상호교류협약서에 조인함으로써 그동안 따로 진행해 왔으나 함께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화관련사업들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실무진들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 내년 동아시아문화도시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 제공과 기획 진행 등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문화기관 정례협의회 참여 기관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디자인센터, 광주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아시아문화개발원 등 7개 기관이다. 문의 062-670-7431.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일상을 기록하며 ‘나’ 찾기

청노루 글쓰기 수강생 모집

광주성공회센터는 8기 청노루 글쓰기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역 여성을 위한 글쓰기 교실로 강의는 오는 9월2일부터 12월9일(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총 15회 진행된다. 장소는 광주시 서구 월산동 광주성공회 센터.

강의 내용은 분장 및 단락 쓰기, 묘사 및 서사 쓰기, 일상을 기록하는 법, 에세이 쓰는 법, 글쓰기 치료 등이며 희곡작가이자 극단 ‘허방’ 대표



인 김명학(사진) 씨가 강사로 참여한다.

일상의 기록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나를 찾고자 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마감은 9월2일이다.

다음 카페 ‘청노루글쓰기’ 공지사항에 댓글로 이름을 남기면 된다. 수강료 무료(교재비는 있음) 문의 018-642-9263. /김미은기자 mekim@

###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충장로5가 버스도로점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매도 9억6천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411㎡(124) 건평327㎡(99)공시지가 2억8200 매도 3억
- 합평군 영일 칠되는 여관 포함해 접해있는 주거지역 504평. 땅에는 생활주택 등 적합 대출4억 매도10억45천

**매도·임대**

- 매도. 신창동 진흥고 부근 대지302평 건물715평. 회사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적합 은행17억 전세4억3천 월 1650만원선 35억
- 매도. 수기동 상업지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12억 가능 은행3억 매도7억8천
- 매도. 목포대학부근 생활주택 84개 허가한 땅480평 은행2억 8천 투자 가치좋은 5억6천만원
- 매도. 신안군 지도읍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38평 25세대. 54평 5세대. 대출은 8천에서 1억 가능. 38평은 1억3900만원 54평은 1억8500만원 임대도 가능함
- 매도. 쌍촌동 호텔급 시설의 생활주택 24㎡ (8평형) 10채 채당 보증금500에 월40 임대가는 세대당 대출은 3500 매도는 호당 6200만원 실투자 2억2천에 월4000선 수입예상 임대생활에 적합 6억2천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부근 대로변 주택전시관 1층 167㎡(50) 보증금 5천 월2백선 조정가능 주차장 넓은
- 임대. 쌍촌동 기도건설의 주택전시관 70평 다양한 용도 사용가능. 40평과 30평으로 분할 임대도 가능. 보증금5000에 월200선. 조정 가능함.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가도건설 전속중개사사무소입니다.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취다와옥션건설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상가 주택임차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 동구 충장로5가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감정가43억 최저가24억
- ▷ 광산구 온남동 2중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440㎡ 감정가75억 최저가35억5천만
- ▷ 광산구 신가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감정가69억9천만 최저가49억8천만

**단독주택**

- ▷ 서구 화정동 2중주거2중주택 대지159㎡ 건평184㎡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19천만
- ▷ 서구 화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감정가1억6천만 최저가192천만
- ▷ 광산구 송정동 2중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19천만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지족동 준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1379㎡ 감정가155억 최저가78억3천만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21억
- ▷ 담양군 창평면 단층창고,사무실 토지3279㎡ 건물1560㎡ 감정가14억7천 최저가3억2천만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용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일야 3642㎡ 매매3,500만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94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9억, 월1200만인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10층) 보25억, 월6500만인 매130억원
- 광산구 수원지구(5층) 보2억천,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창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점 지역농지** 3,400㎡ 매32억원 (병원, 차고지, 대형기든, 정래예식장, 투자족집)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사옥)
- **치명동 광산도로 395㎡** 매14억원(병원,사옥,전시장)
- **쌍촌동 윤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725억 (사옥,전시장,병원,도시형)

• 상가건물, 내대지 급구 •

010-3753-0033

###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남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 공 장 매 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몰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흥농공단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